■ 호남고속철 광주송정~목포 임성역 노선 결정 쟁점 사안

전남도 "무안공항 경유해야" 나주 지역민 "나주역 경유를"

호남고속철도 노선 최종 결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전남도가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광주~목포(임성역) 구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호남고속철도의 무안 공항 경유는 침체된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도약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4개 노선 중 최적은?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노선 선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설공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의 4개 대안노선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공단의 노선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말 최종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되는 4개 노선은 현재 운행되는 노선을 제외한 것으로 ▲1안은 애초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고시된 노선(48.6㎞·2조3200억원) ▲2안 나주역을 경유하는 노선(50.9㎞·2조100억원) ▲3안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64.9㎞·3조1400억원) ▲4안 나주역을 경유하고 함평에서 무안공항으로 지선으로 연결되는 노선(76.1㎞·9700억원) 등이다.

◇전남도와 나주 입장 서로 달라 = 전남도는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도약,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3안'을 선호하고 있다. 3안의 경우 송정리~목포(임성역)간 운행시간이 16분으로, 기존 기본계획 노선(13분)에 비해 운행 시간이 길어지고 노선이 16.3㎞ 연장되면서 8200억원의 추가 사업비가 드는 부담이 있다.

반면,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문제는 경제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남도 논리다.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게 되면 국내외로 항공과 고속철도 교통 수요가 연계되면서 공항·고속철도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무안공항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무안기업도시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만큼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는 이들 사업의 가속화를 가져오면서 장래 교통수요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29일 간부 회의에서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최적 노선을 개발해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역 이익이 아닌, 전남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고 접근해야 한다","공항 바로 옆이 아니라 셔틀 등으로 이동하는 노선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최근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낸 연구보고서를 통해 "호남고속철도가 무안공항을 경유하면 전북지역 접근성도 향상되면서 호남권 거점공항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KTX가 반드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의 입장도 관심거리다. 나주시의 경우 향후 조성되는 혁신도시로 유입 인구가 많다는 점 등을 들어 나주역 경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2안을 선호하고 있다.

2안의 경우 1안보다는 사업비가 많지만 3안보다는 적다. 운행시간도 14분으로 3안보다 짧다. 하지만 평균 속도가 214㎞/h에 불과한 저속으로, 3안(243㎞/h), 1안(242㎞/h)에 비해서도 늦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전남도와 무안, 나주 주민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자칫 설명회가 지역 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의 공간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지역 이익만을 보지 말고 전남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최적의 노선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KTX 광주 - 목포구간 노선 4가지 대안

구분	현 운행선	대안1	대안2	대안3	대안4
노선개요	호남선 복선전철	고속선 신설 나주역 미경유 무안공항 미경유	일부고속선 신설 나주역경유 무안공항 미경유	고속선신설 나주역미경유 무안공항경유	기존선활용 나주역경유 무한공항 직결
연장	59.5㎞	48.6㎞	50.9㎞	64.9㎞	76.1㎞
운행속도	137㎞/h	242㎞/h	214㎞/h	243㎞/h	188㎞/h
소요예산	-	23,200억	20,100억	31,400억	9,700억
소요시간	26분	무안공항 × 목포 13분	무안공항 × 목포 14분	무안공항 11분 목포 16분	무안공항 16분 목포 19분

4개 대안 놓고 의견 수렴
금성산 통과 반대 민원도
"전남발전, 최적 노선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 포격 도발에 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통령 '북 핵포기 난망' 발언 왜 나왔나

대북정책 초강경 전환 시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상호주의에 근간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초강경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반인륜적 범죄', '응분의 대가' 등의 강경한 단어들을 쏟아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고 지적한데 이어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지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대북 관계에 있어 대화와 협력보다는 제재와 압박에 우선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과의 '대화' 국면은 쉽게 조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중국이 제의한 '6자회담 수석대표'회동도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면서 북 핵 문제가 꼬이는 것은 물론 대북 관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북 핵 문제에 대해선 전략적으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하는데 강경한 대북 정책이 '6자회담 무용론'과 연계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의 강경한 의지에 따라 대북 지원 등도 상당 기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남북 적십자회담은 무기한 연기됐고 시멘트 7000톤 등 북한의 홍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물자 인도도 잠정 중단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대통령 "지금은 때가 아니다" 했는데
中 외교부, 6자회담 제안 '결례' 아닌가

"정부가 중국에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자회담 재개만 말하는 것은 중국이 너무한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혔는데도 중국에서 바로 발표한 건 외교적 결례 아닌가"

28일 오후 정부 고위당국자가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의 방한 결과 및 중국측의 6자회담 긴급협의 제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은 '결례'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다이 국무위원에게 "지금은 (6자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중국이 불과 몇 시간 후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12월 초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한 기자들의 궁금증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그런 판단에 꼭 동의하진 않는다"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국면에서 6자회담 의장국이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 긴밀한 소통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이 국무위원이 급히 방문하고자 할 때 우리로선 열린 자세로 받아들였다"며 "이번 기회에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그 외에도 토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공식적인 반응 이면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국내 격앙된 분위기가 확산된 가운데 중국측이 '국면을 바꿀만한' '특별 제안'을 한데 대해 정부 당국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연합뉴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옆):032)329-4400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극장 앞):055)745-9870 창원점(한마음병원 뒤):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